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호암사 신도봉사회 보리수회

치매어르신 부모님처럼 모셔요

“할머니, 저기 선생님 따라하세요. 이렇게요, 응?”

서울 시흥 해명복지회 청담노인복지관(관장 혜성) 치매단기보호센터.

4월 18일, 월요일 아침마다 울동을 한 가지씩 배우는 어르신들이 ‘고향의 봄’ 멜로디에 맞춰 손뼉을 치고 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라 보니 행동이 서투르다. 어떤 어르신은 수레 관심도 없다. 그런 노인들에게 일일이 선생님의 동작을 알려주면서 주먹을 꼭 잡고 꿰다 쥐었다 하는 사람은 호암사(주지 원우) 신도 봉사 모임인 보리수회 문복렬(55) 보살이다.

문 보살이 어르신들의 레크리에이션 수업을 돕고 있는 동안 같은 보리수회 백옥례(57) 보살과 김경숙(57) 보살은 노인들의 한방 치료 돕기에 한창이다.

“우리 그냥 선생님들 도와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만 하는 건데요, 킬.”

백 보살과 김 보살은 자신들이 하는 봉

사를 한껏 낮춰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봉사는 가장 세심하고도 가까운 봉사다. 속땀을 뜨고 침을 놓는 자리를 소독하고, 땀을 흘려놓은 부위가 뜨거워지면 다시 갈아주고를 반복하는 것이 전부라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기저기서 ‘뜨겁다’는 비명이 터져나올까봐 마음이 바쁘다.

보리수회는 7년 전, 4명의 불자들이 도반으로 만나 사찰 공양 등 절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1년 전부터 청담복지관까지 봉사 영역을 넓히게 됐다. 같은 절 신도는 아니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허연덕(55) 보살도 호암사 신도들과 자연스럽게 보리수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살림만 따로 하지,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한다”는 보리수회 보살들. 지금까지 같이 해 온 세월만큼 앞으로는 함께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 잡는다.

김강진 기자



호암사 신도 봉사회인 보리수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치매단기보호센터를 찾는다. 사진은 4월 18일 센터를 찾아 어르신에게 땀봉사를 하는 모습.

성인용 기저귀·옷·양말·간식 늘 부족해요

청담노인복지관 치매단기보호센터에서는 노인들의 대소변을 해결해줄 성인용 기저귀가 항상 필요하다. 또한 의류·양말 등은 노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바자회 물품으로도 늘 부족한 상태다. 보리수회

문복렬 보살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먹일 간식도 많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특히 컴퓨터가 없어 고생”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정도 함께 호소했다. (02)806-1377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을 진행했다. 이날 밤에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득했다.

절 한번에 100원 “사랑이 쌓여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500여명 참가

웃은 이미 땀에 젖은 지 오래다. 밤 추위 때문에 덧입었던 옷을 벗어도 흐르는 땀은 주체할 수 없다.

“딱”하고 죽비 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들리면 절하고를 일 세 없이 반복한다.

올해 봉족 표어인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에 맞춰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는 500여 명이 모여 ‘절삼매경’에 빠졌다. 이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5회째 펼치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 둘 모인 복지재단 소속 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이다.

이번 행사는 절 1배당 100원씩, 다만 3000배 보시금은 3만원으로 책정, 각자가 절한 횟수만큼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음은 있으나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진 기도 당일 행사 부스에 마련된 모금함에 직접 보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모인 기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복지재단이 직접 전달하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을 난치병 아동들

을 생각하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쾌유의 원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아이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의 법문으로 일제식이 시작되면서 108배가 진행됐다. 어느 노보살은 다리가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2, 3배 할 동안 겨우 1배를 해내지만 그 한 번 두 번 이어지는 절에도 정성이 가득하다.

시간이 흐르고 정진이 계속되면서 절을 하는 몸이 무뎠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참가자들의 머릿속을 스친다. 그러나 한 번씩 절을 해낼 때 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금도 조금씩 커지기에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염원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자기 내면의 부처 앞에 선 이들의 바람은 흐르는 땀 속에 고스란히 녹아 나온다.

새벽 4시, 드디어 3000배 정진은 끝이 났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오늘 한 3000배가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어보였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나눔의 등 축제’

“나와 이웃 모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등을 달았어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에서는 4월 18일부터 복지관과 인사동 일대에 연등을 달고 ‘나눔의 등 축제’를 시작했다.

이번에 4회를 맞은 나눔의 등 축제는 5월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자비와 효(孝)를 함께 생각하

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물론 가훈씨주기, 장터, 자원봉사체험 등으로 꾸며진 이번 행사는 5월 16일까지 펼쳐진다. 장터와 공연 수익금, 연중행사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 중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나머지 수익금도 복지센터 회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버스 구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02)732-2115 김강진 기자

안면암, 낙도장학금 500만원 전달



낙도지역 초중고생 3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안면도 안면암 낙도장학회(회장 김무량화)는 4월 15일 안면도 관내 7개 초중고교 학생 30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천).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무량화 장학회장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열심이 공부하면 반드시 후원자가 생기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안면암 원주 설암 스님은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남을 위하는 일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낙도장학회는 1998년 낙도포교전진기지인 안면암을 건립한 허공장 불교신행회 지도법사 지명 스님이 김무량화 보살이 기탁한 1억원으로 장학회를 설립했다. 2002년부터 매년 3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현재까지 총 120명에게 2000만원이 지급됐다.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김형주 41,370원  
윤선에 10,000원

총 누적금액 40,135,09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념과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나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의 나눔의 등 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해동불원(海東佛院) 자비회(慈悲會)

베트남 아가씨와 농어촌 짝지어 주기 운동(초혼, 재혼)

삼보에 귀의 하옵고

本佛院慈悲會에서는 國家發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現在 몇쌍을 베트남에 출국하여 寺院을 가지고 布教 하시는 한국스님들의 指導로 成大한 結婚式을 올리고 왔습니다. 本 行事가 成功的으로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各 寺庵 스님들의 協助아래 잘 이루어졌음을 深心한 謝意를 올리며 앞으로는 結婚한 신부들을 3개월 가량의 生活韓國語를 敎育 시켜서 言語의 不便을 덜고자 努力 할 것이며 베트남에 계신 스님들의 엄선된 新婦로 先定할 것입니다.

合同 結婚式 等으로 諸經 經費를 줄여서 成婚코저 하오니 各 寺庵 스님들께서는 조금도 심려 마시고 本運動에 同參하시여 많은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各種 結婚 사진과 현지 촬영한 비디오 필름을 보관 하고 있으며 의심점이 있으시면 왕림하시여 VTR로 시청 하시며 상담을 바랍니다.



베트남 관음사 사찰과 자매결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탑골공원 뒤편) 전화: 02)741-4031~3 팩스: 02)765-3169

직통상담전화 H·P. 011-494-9595 담당스님 : 만해스님

海東佛院 慈悲會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6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5년 6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5년 6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